현안과 과제 10-23

국내외 경제

현안과 과제

2010. 9. 16.

체감과 지수 물가 괴리 배경
– 추석 물가 왜 급등하나?

現代經濟硏究院
HYUNDAI RESEARCH INSTITUTE

1. 식품 물가 급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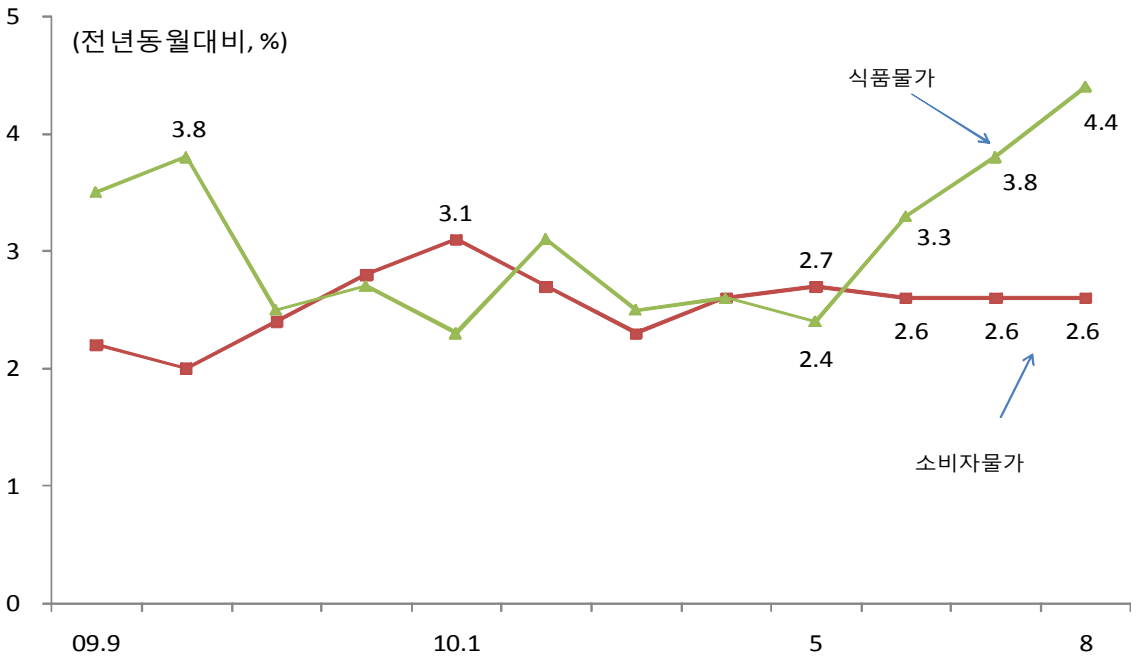
○ 체감물가 지수 중의 하나인 식품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전체 평균 물가지수인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

-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를 하고 추석 물가에 영향이 큰 식품물가지수가 높은 증가율을 보임
  - 식품물가지수는 2010년 5월 전년동월대비 2.4%를 기록 한 후 6월 3.3%, 7월 3.8%, 8월 4.4%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냄

- 이에 비해 평균 물가 지수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개월 연속 2%대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안정세 유지
  - 소비자물가는 2010년 1월 전년동월대비 3.1% 기록 후 안정되어 5월 2.7%, 6월 2.6%, 7월 2.6%, 8월 2.6%로 2%대 증가율 유지

※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고, 체감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임.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1998년에 도입한 생활물가지수는 '식품'과 '식품이외'로 구분됨

< 식품물가와 소비자물가 추이 >



자료 : 통계청 DB.
주 : 식품물가는 지출목적별 분류의 식료품, 차와 음료, 주류, 외식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구성.

2. 식품 물가 급등의 배경

1) 이상기온으로 인한 국내 농산물 가격 상승

○ 국내 기상이변으로 인해 신선채소 등 농산물 가격 급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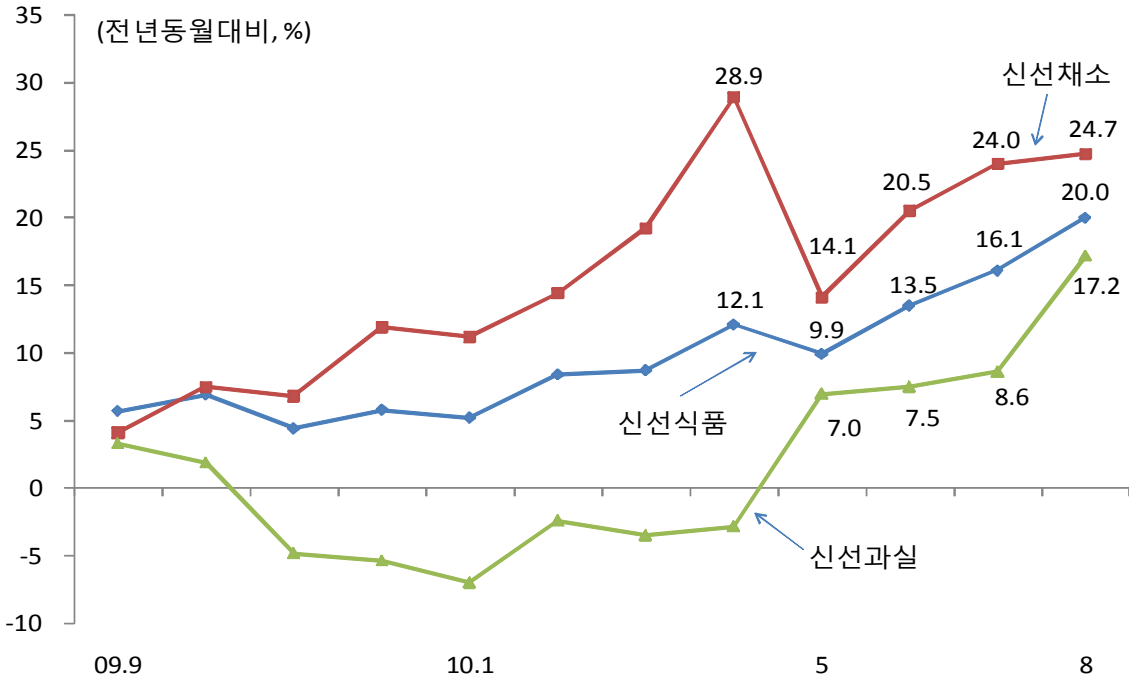
- 올해 들어 폭설과 이상 저온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기상 상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채소류의 가격인 신선채소 물가지수 급등
  · 2010년 4월 전년동월대비 28.9%, 5월 14.1%, 6월 20.5%, 7월 24.0, 8월 24.7%%로 큰 폭으로 상승

- 신선과실도 2010년 8월 17.2%로 큰 폭의 증가율 기록

○ 그 결과 신선식품 물가지수 큰 폭 상승

- 전년동월대비로 2010년 4월 12.1%, 5월 9.9%, 6월 13.5%, 7월 16.1%, 8월 20.0% 기록

< 신선채소와 신선식품 물가지수 증감율 추이 >



자료 : 통계청.

2) 국제 곡물 가격 상승

○ 수급 불안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도 급상승

- 러시아의 가뭄과 파키스탄의 홍수 등으로 인한 곡물 수출 금지 등으로 쌀, 보리, 옥수수, 귀리 등에 대한 공급량 부족 우려가 고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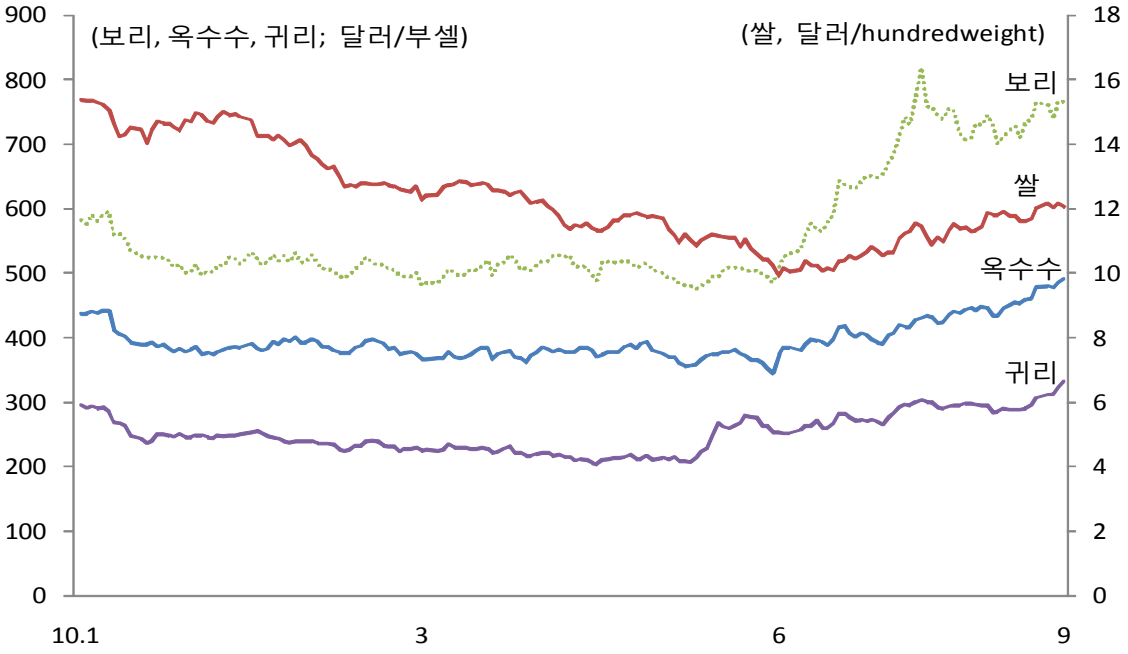
- 이에 따라 쌀의 시카고상품거래소 선물가격은 2010년 9월 중순 현재 헌드레드웨이트(hundredweight) 당 12.06달러로 6월말 9.93달러 대비 25.5% 급등

- 보리는 2010년 6월말 부셀(Bushel) 당 506.5 달러에서 9월 중순 765.8달러로 51.2%나 급등

- 옥수수의 선물가격은 2010년 9월 중순 부셀(Bushel) 당 491.3달러로 6월 말 373.5달러 대비 31.5% 증가

- 귀리의 선물가격은 2010년 9월 중순 부셀(Bushel) 당 331.0달러로 6월 말 253.0달러 대비 30.8% 증가

< 주요 국제 곡물 가격 추이 >



자료 : EcoWin DB.
주 : 헌드레드웨이트(hundredweight)는 무게 단위로 미국에서는 100파운드, 영국에서는 112파운드.

3) 지수 산정 방식의 한계

○ 첫째, 물가 산정 시 품목 개수와 특징의 차이 존재

- 소비자물가지수는 상품 및 서비스 489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신선식품지수는 과일·채소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1개 품목으로 작성되어 있음

- 식품물가지수는 가계에서 추석에 주로 구매하는 과일(사과, 포도, 귤, 참외, 수박, 딸기), 무, 양파, 마늘, 명태, 멸치, 고등어 등을 포함

○ 둘째, 식품물가 급등은 심리적으로 전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인식하여 체감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

- 식품물가의 구성 항목이 개별 가구들이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품목들이 많고 추석 전후로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상품들이 많아 주관적으로 느끼는 체감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
  · 식품물가는 개인이 상품을 구입 시 느끼는 주관적인 물가이므로 자주 구입하는 품목의 가격변동에 민감함

○ 셋째, 지수 산정 상 품목 비중과 실제 가계 소비 품목별 비중과 차이 존재

- 소비자물가 지수는 5년 단위로 품목 비중을 산정
  ·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년을 기준으로 품목 비중이 구성되어 현재의 소비 지출 구성과 달라졌을 경우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게 됨

- 현재 소비자물가 품목 비중이 소비패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함
  ·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지출목적별 비중은 2010년 8월 현재 임료(주거) 및 수도·광열비가 17.0%,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4.0%, 외식(음식)·숙박 13.3%, 주거 및 교육 11.1%, 교통 10.9% 순임
  · 한편, 가계의 소비지출은 2010년 2/4분기에 임료 및 수도광열 16.1%, 기타 13.4%,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12.3%, 교통 11.8%, 음식·숙박 8.4%로 소비자물가 지출 비중과 괴리를 보임

< 가계 소비 지출 및 소비자물가 산정 비중 >

	가계 목적별 소비지출 (2010년 2/4분기)	소비자물가 산정 비중 (현재 기준)
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	12.3 (3)	14.0 (2)
주류 및 담배	2.3 (12)	1.5 (12)
의류 및 신발	5.3 (9)	5.8 (7)
임료(주거) 및 수도광열	16.1 (1)	17.0 (1)
가계시설 및 운영	3.4 (11)	4.2 (11)
의료 보건	6.7 (8)	5.2 (10)
교통	11.8 (4)	10.9 (5)
통신	4.6 (10)	6.0 (6)
오락문화	8.2 (6)	5.6 (8)
교육	7.2 (7)	11.1 (4)
음식(외식)·숙박	8.4 (5)	13.3 (3)
기타	13.7 (2)	5.4 (9)

자료 : 한국은행; 통계청.
주 : ( ) 안 총지출 대비 비중 순위임.

○ 이외에도 소비자물가는 기술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체감물가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

- 기술 혁신으로 인한 가격 변화의 반영 미흡

· 기술 혁신 등에 따라 빠른 속도로 신형 제품이 나오는데 구형 제품을 기준으로 물가지수를 산출하여 신제품에 대한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함

· 예를 들어 스마트폰, 3DTV 등은 첨단기술의 적용으로 가격이 비싸지는 데, 이것이 제품에 바로 반영되지 못함

3. 물가 괴리 완화 방안

○ 최근 체감물가 급등은 비용 상승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가 비용 상승 요인이 되는 금리 인상을 통해 완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임

- 물가 상승 압력이 수요 측면이 아닌 국제곡물 가격 상승 등 비용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유통구조 효율화 등의 방법이 물가 안정화를 위해 보다 근본적 대안

○ 체감 물가 상승에 의한 기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표물가와 체감물가와의 괴리를 줄이는 것이 필요

- **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** : 직판장 확충 및 인터넷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산물의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 도모
  - 산지-운송-소비자를 연결하는 효율적인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산물 가격 상승폭을 최소화

- **비축 물량 제도 활용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** : 공급불안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정부비축 시스템을 보완
  - 수급 변동성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재고 규모를 늘림으로써 수급 안정화 유도
  - 농산물 등의 현물 비축 물량 증가는 보관비용 증가도 발생함으로 선물시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

- **지수 산정 방식 보완** : 체감 물가와 지수 물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지수 산정 개선방안 모색
  - 급변하는 가계 소비 패턴 반영을 위한 기준연도 단축 고려
  - 스마트 폰 등 기술혁신을 반영할 수 있는 제품 구성 전환

임 희 정 연구원 (2072-6218, limhj9@hri.co.kr)